

칠레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

해외농업 시리즈 5

칠레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

1. 국가 개황1)

지형과 기후: 강렬함과 다양성이 공존

칠레는 남아메리카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좁고 길게 뻗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이다. 칠레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는 총 4,300km이며, 가로 길이로 넓은 곳은 375km, 짧은 곳은 90km로 평균 177km이다〈그림 1〉.2

북쪽으로 페루와 접하고 북동쪽으로 볼리비아, 동쪽으로는 아르헨티나와 길게 국경지대를 공유한다. 또한 남쪽으로는 남극에까지 이르며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해 있다. 동쪽으로 안데스산맥, 서쪽으로 태평양이 위치하여 외래병해충의 침투가 쉽지 않아 안전한 환경을 보호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 국토면적은 75만 6천㎞이며, 그 중 20% 정도가 평야이다.

칠레의 행정구역은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12개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산티아고(Santiago)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제I지역부터 제V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제VI지역부터 제XII지역까지 위치한다. 칠레의 북쪽 1번과 2번 지역은 건조한 사막시대이며 광물과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남쪽 11번, 12번 지역은 한대지방으로 연간 강수량이 5,000mm에 이르며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중부지역에는 수도 산티아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온대성 기후로 강들이 있고 농산물 생산의 중심지역이다.

¹⁾ 주한 칠레대사관 제공자료 "Chile"와 "Pro CHILE", 인터넷 검색자료(http://enc.daum.net/)에서 인용함.

²⁾ 칠레 남북단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길이 453km의 약 9.5배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음.

³⁾ 칠레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 99.900km²의 약 7.6배임.

칠레의 지역별 위치와 도시명은 다음과 같다. 제I지역은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제I지역 시는 이끼께(Iquique)이다. 제II지역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제III지역 코피아포(Copiapo), 제IV지역 라세라나(La serena), 제V지역 시는 발파라이소 (Valparaiso)이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접하는 처음 지역은 제VI지역으로 시명은 란카쿠아(Rancaqua), 제VII지역 시는 탈카(Talca), 제VII지역 시는 콘셉시온(Concepcion), 제IX지역 시는 테무코(Temuco), 제X지역 시는 푸에르토몬 토(Puerto Montt), 제XI지역 시는 코야이케(Coiheiqus)이다. 칠레의 맨 남단에 있는 제XII지역 시는 푼타아레나스(Punta Arenas)이다.

그림 1. 칠레 지도



칠레 국가 기본정보

- 공식국명: 칠레
- 0 국기



- O 수도: 산티아고(Santiago)
- 면적: 756,096km²
- 위도: 남위 17°30′~56°30′,
 서경 66°15′~76°45′
- 인구: 15,500,000명
- 0 언어: 스페인어
- 화폐: 페소(peso), 1US\$≒680peso
- 종교: 가톨릭(70%), 개신교(20%)
- 한-칠레 거리: 약 18,000km
- 계절 및 시간: 한국과 거의 반대
- 0 행정구역
- 13개 지방, 51개 도, 342개 시
- 각 지방, 도, 시에는 지방 관구장, 주지사 및 시장이 있음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는 칠레 산업의 중심지로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집결 되어 있다. 또한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산티아고의 면적은 약 556km이며 약 550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남부지방은 강우량이 많은 지역으로 주요 수산자원과 산림자원의 생산지이며, 엄격한 정책 하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 북부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반면 중부의 강수량은 1년에 305~355mm인데 4월 부터 9월까지 주로 겨울에 내린다.⁴ 칠레 남부는 일 년에 2,300mm의 비가 내리고 파타고니아 서부의 강수량은 4,100mm이다. 칠레 남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봄에는 안데스 산맥에서 눈이 녹아 작은 강들이 크고 물살이 센 강으로 변모한다. 이 강들은 수력 발전으로 이용되는데, 이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4분의 3은 수력으로, 나머지는 화력으로 만들어 낸다.

한-칠레 교역

칠레와 한국의 양국관계는 1962년 4월 18일에 수립되어 그 후 약 40년 이상 지속되었다. 1969년 칠레가 서울에 최초의 상주공관을 개설하면서 양국의 무역, 정치관계는 더욱 발전하여 한국은 최초 자유무역협정을 칠레와 체결하게 된다. 이는 2003년 2월 15일 체결되고 2004년 4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칠레는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약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무역개방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칠레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은 여섯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네번째 수출 대상 시장이다. 칠레산 과일의 한국 수출은 포도, 키위, 레몬에 대해 허용되었고 이후 오렌지가 추가되었다.

⁴⁾ 대한민국은 연강수량이 800~1,500mm로서 세계적으로 습윤지역에 속한다. 강수는 여름에 집중되며, 6~8월 의 3개월간의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50% 이상이다(출처: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 =all&articleID=b04d3332b),

2. 과수산업 개황

과수산업 개황

칠레 과수산업은 남반구 신선과일 수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칠레 수출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과수산업은 고용과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기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칠레 과수 수출산업은 재배규모가 5ha 이상인 7,80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 518 개 이상의 수출회사를 통하여 과일을 상품화한다. 과수산업은 약 215,000ha의 재배면 적에 75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여 세계의 70개 국가로 직접 수출한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별 및 포장 기반을 구축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기반시설은 과수 주산지에 걸쳐 1,000개 이상의 지역 포장센터와 100여개에 이르는 중앙 포장센터, 385개 이상의 저온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GAP_Good Agricultural Practices

칠레는 과수 수출국가로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관련된 개념들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절차들은 안전농산물을 확보하는 일련의 법규들을 포함한다. 즉,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구체화한다. 칠레의 GAP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목적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유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칠레의 GAP 프로그램(ChileGAP)은 농장단계에서부터 실시된다. 주된 목적은 작물과 병충해, 작업자의 후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핵심은 위생과 안전성을

⁵⁾ 칠레신선과일연합회 자료 인용(www.sffa.org)

포함하는 것이다. 포장단계에서 ChileGAP 프로그램은 우수공정조치(Good Manufacturing Practices)와 표준위생작동절차(Standard Sanitation Operational Procedure; SSOP's)를 적용한다. 농가단위 포장단계에서 프로그램은 위해물질조절 (Contamination Control of Critical Points; HACCP)과 작업자의 안전과 후생을 심사숙고한다.

과일수출연합회(ASOEX)

칠레 과일수출연합회(ASOEX)는 칠레 신선과일 수출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회원의 수출물량은 칠레 신선과일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ASOEX의역할은 칠레 신선과일 부문의 이익과 산업훈련 프로그램, 구성원들 사이의 기술 교류와 세계 각국의 신시장 개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과수 수출국가로서 칠레는 GAP(ChileGAP)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생산 과일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산물 영양 보충식품으로서의 합리적인 이용, 위생규정, 일관생산, 위생적인 노동, 환경 보호 등도 포함한다.

3. 과수산업 여건

품질 측면

(1) 과일 당도 증진에 매우 유리한 기후조건

칠레 과수 주요 생산지역은 남위 30~40°에 위치하는 중부 지역이다. 중부지역은

⁶⁾ 문헌자료, 인터넷자료, 현지면담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함.

지중해성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5~12℃, 평균 강수량은 305~355mm로 주로 5~8월의 겨울에 내린다. 칠레 과수재배 면적의 70%가 산티아고와 산티아고 주변의 제5지역, 제6지역에 위치한다.

신선포도의 경우 출하기간이 12~5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생육 및 수확기로 강우량이 매우 적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일교차가 커 당도를 높이기에 매우 유리하다. 부족한 강우량은 안데스 산맥에서 녹아 흐르는 풍부한 용수를 이용한 관개 및 관수를 실시하여 보충한다.

실제로 포도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은 포도, 사과 등 과일류의 당도에 대해서는 생산이나 선별 및 유통 과정에서 당도를 검사하지 않을 정도로 당도가 높다.

바다와 사막, 산맥 등 칠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적 조건과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연도별, 생산시기별 과일의 품질이나 단위당 수확량의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

(2) 과일 안전성 유지에 적합한 지형 조건

칠레는 지형적으로 볼 때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 동쪽으로 5,000m급의 안데스 산맥, 남쪽으로는 혹한의 남극지대에 둘러싸여 있어 외래 병충해가 쉽게 유입될 수 없는 자연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

칠레 당국에서도 국가 간 동식물 이동 과정에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차단하는 청정 환경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수 생육기 및 수 확기에 강우일수 및 강우량이 적으므로 병충해 발생 빈도도 적은 편이다.

가격 측면

(1) 생산비용이 낮아 가격경쟁력에 유리

칠레 과일의 가격경쟁력은 값싼 토지와 저렴한 인건비로 과일 가격을 낮출 수 있어 매우 유리한 편이다. 인건비 수준은 일반 가게 종업원의 인건비가 1인당 월 300달러 정도, 양돈 도축라인 작업 종사자의 월평균 수입이 500달러 전후일 정도로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다."

(2) 기업농 위주의 농업구조

칠레의 농가규모는 평균 15ha 수준으로 대규모 기업농 위주의 영농구조이며, 20ha 이상 규모인 농장이 전체 농가의 18%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 농가들도 대규모 선별, 포장센터(packing house)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생산, 출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칠레의 과일 농장규모와 분포

농장규모					지역별 🖁	분포					점유비율
(ha)	3	4	5	MR	6	7	8	9	10	합계	(%)
10ha 미만	311	1,423	2,504	1,473	1,526	751	393	72	75	8,528	67.6
10~20	51	150	364	438	505	255	37	4	14	1,818	14.4
20~40	26	93	223	345	364	219	17	3	5	1,295	10.3
40ha 이상	45	35	117	277	306	171	13	6	2	972	7.7
비 율	3.4	13.5	25.4	20.1	21.4	11.1	3.6	0.7	0.8	12,613	100.0

주) MR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시 지역임.

자료: 어명근 외(2000)

⁷⁾ 현지 면담 및 인터넷조사 결과임.

4. 과일 주산지와 공급시기

지역별 생산 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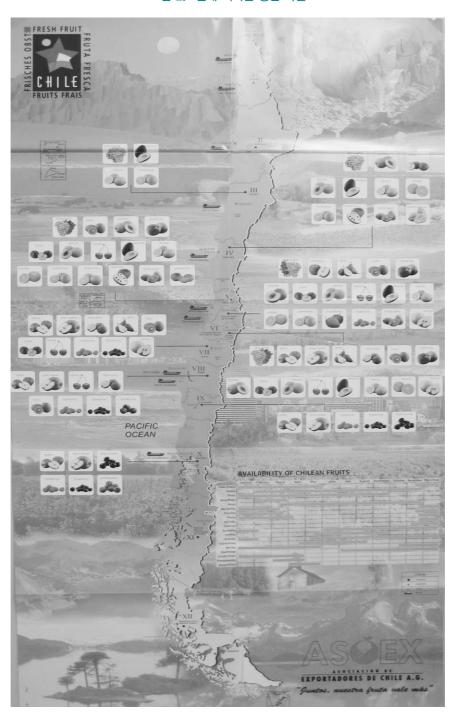
칠레는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수도 산티아고시 주변으로 북쪽과 남쪽에 걸쳐 과수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이곳에서 과일이 생산된다. 산티아고를 주변으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등 대부분의 과종들이 생산된다. 다른 과종들과 달리 감귤류는 제 I 지역까지, 딸기는 제 X 지역까지 생산된다 (표 2 및 그림 2 참조).

표 2. 칠레 과일 품목별 생산 지역

품목	지역	I	П	III	IV	٧	MR	VI	VII	VIII	IX	Х	XI	XII
신선	포도													
사	과													
배(동양	배포함)													
₹	위													
H A AI	넥타린													
복숭아	유모계													
자	두													
 살	구													
체	리													
아보	카도													
감 귤	물 류		■						=					
딸 기	기류													

주) MR; metropolitan region-Santiago

그림 2. 칠레 지역별 생산 과일



과일공급기간

칠레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일 품목들의 현지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신선포도는 12~3월까지 공급된다.[®] 키위는 4~11월까지, 오렌지는 5~1월까지 공급된다.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는 현지 주요 과일들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사과는 2~11월, 배는 사과보다 1개월 빠른 1월부터 2개월 빠른 9월까지 공급되며, 그 중 동양배는 2월과 3월에 공급된다. 복숭아와 자두는 1~2월에 주로 공급된다.

표 3. 칠레 과일 품목별 공급 시기

과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선포도												
사 과												
배												
동 양 배												
키 위			■ 1									
복 넥타린 숭 아 유모계												
아 유모계												
자 두												
살 구												
체 리												
아보카도												
레 몬					I							
오 렌 지		 										
감 귤												
베 리												
단 감												

자료: 칠레과일수출연합회(ASOEX)

⁸⁾ 칠레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6\sim9$ 월까지 해당되는 계절에 공급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품목별 생산지역과 공급시기

신선포도의 주 생산지역은 제III지역에서부터 제VII지역까지이다. 품종별로 톰슨 시드레스는 12~3월까지, 크림슨 시드레스는 1~8월까지, 레드 글러브는 2~7월까지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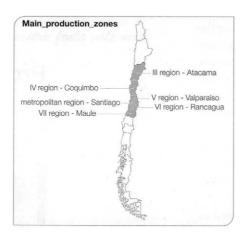
키위 생산지역은 제IV지역에서부터 제VII지역까지이다. 대부분 Hayward 품종이 재배되며 3~11월까지 공급된다. 감귤류는 제I지역에서부터 제VII지역까지 재배되며, 오렌지는 6~11월, 탄제린은 6~7월에 공급된다.

사과의 주 생산지역은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제 V 지역에서부터 제VIII지역까지이다. 로얄 갈라 품종은 2~10월까지, 그래니 스미스는 로얄갈라보다 1개월 늦은 3~11월까지, 후지는 4~12월까지 공급된다. 배 공급지역은 제IV지역에서부터 제VII지역까지이다. 배는 품종에 따라 공급되는 기간이 다르다. Packham's Triumph는 1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공급되지만 Coscia 품종과 동양배와 비슷한 Hosui나 Kosui 품종은 1~2월에만 공급된다.

복숭아는 제IV지역부터 제VII지역까지 생산된다. 유모계와 넥타린 모두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 공급된다. 자두는 제IV지역에서부터 제VII지역까지 생산되며, 각 품종별로 1개월여 동안 공급된다. 가장 빨리 공급되는 Red Beaut 품종은 11월말부터 공급되며 이후 Roysum 품종은 4월 중순까지 공급된다. 살구는 제 V 지역부터 제VI지역까지 생산되며,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공급된다.

아보카도는 제IV지역부터 제VII지역까지 생산된다. Fuerte 품종은 6~9월까지, Hass 품종은 7~1월까지 공급된다. 체리는 산티아고에서부터 제VII지역까지 생산되며, 공급시기는 11월말부터 12월까지이다.

그림 3. 칠레 신선포도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포도 생산지역〉

Ī	Ⅰ 지역	Ш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	•					

주) MR: 산티아고시

〈포도 품종별 공급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TS		•	•									•
CS	•	•	•	•	•	•	•	•				
RG		•	•	•	•	•	•					

주 1) TS는 Tomson Seedless, CS는 Crimson Seedless, RG는 Red Globe 품종임.

2) MR: 산티아고













perlette flame seedless sugraone

thompson seedless black seedless crimson seedless

그림 4. 칠레 키위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키위 생산지역〉

Ⅰ 지역	Ш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	•				

주) MR: 산티아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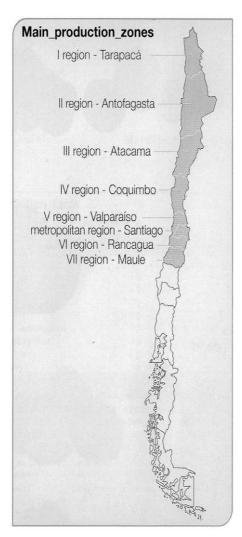
〈키위 공급시기〉

품 경	§ 15	월 2	2 3	4	5	6	7	8	9	10	11	12
Haywa	rd		•	•	•	•	•	•	•	•	•	



hayward

그림 5. 칠레 감귤류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감귤류 생산지역〉

Ⅰ 지역	Ш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	•	•	•					

〈감귤류 품종별 공급시기〉

품 종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레 몬						•	•	•	•			
오렌지						•	•	•	•	•	•	
클레멘타인					•	•	•					
탄제린						•	•					





lemon genova

lemon eureka





orange lavel late

orange lane 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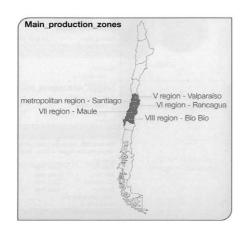




tangelo mineola

mandarine clemenul

그림 6. 칠레 사과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사과 생산지역〉

Ī	Ⅰ 지역	Ш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				

주) MR: 칠레 수도 산티아고

〈사과 품종별 공급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RG		•	•	•	•	•	•	•	•	•		
GS			•	•	•	•	•	•	•	•	•	
FJ				•	•	•	•	•	•	•	•	•

주 1) RG는 royal gala, GS는 granny smith, FJ 는 fuji 품종임.

2) MR: 칠레 수도 산티아고













royal gala

richared delicious

red chief

scarlett

red king oregon red starking

그림 7. 칠레 배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배 생산지역〉

	l 지역	- 11	III	N/	1/	MD	1//	VAL	1/111	IV.	v	VI.	VII
	그시작	Ш		IV	V	INIK	VI	VII	VIII	IV	^	N	ΛII
-				_	_	_		_					
				•	•	•	•	•					

〈배 품종별 공급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Сс	•	•										
AF		•	•	•								
Ks		•										

주: Cc는 Coscia, AF는 Abate Fetel, Ks는 Kosui 품종임.











coscia

packham's triumph

hosui

kosui

d'anjou

그림 8. 칠레 복숭아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복숭아 생산지역〉

٠	l 지역	Ш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복숭아 품종별 공급시기〉

	1월			5	6	7	8	9	10	11	12
유모계	•	•	•								•
넥타린	•	•	•								•

〈유모계 복숭아 품종〉



flavorcreast





elegant lady



o'henry



kaweah



september snow

〈넥타린 품종〉



big john



red diamond



summer grand



summer diamond

그림 9. 칠레 자두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자두 생산지역〉

7	기역	Ш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	•					

〈자두 품종별 공급시기〉

품 종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Fortune	•											
Friar	•											
Roysum			•	•								



fort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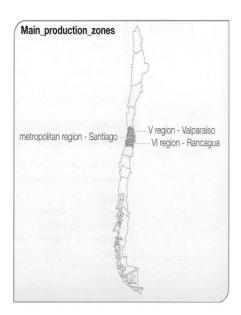




larry ann

friar

그림 10. 칠레 살구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살구 생산지역〉

Ⅰ 지역	Ш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주) MR: 칠레 수도 산티아고

〈살구 품종별 공급시기〉

품 종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Castle Brite											•	•
Dina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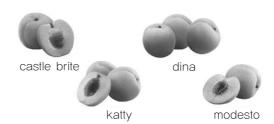


그림 11. 칠레 아보카도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아보카도 생산지역〉

7	역	П	III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					

〈아보카도 품종별 공급시기〉

품 종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Fuerte						•	•	•	•			
Hass	•						•	•	•	•	•	•





fuerte

hass

그림 12. 칠레 체리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체리 생산지역〉

l 지역	П	Ш	IV	٧	MR	VI	VII	VIII	IX	Χ	XI	XII
					•	•	•	•				

〈체리 품종별 공급시기〉

품 종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Bing												•
Va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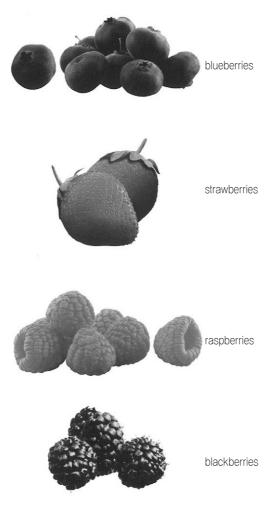




bing

van

그림 13. 칠레 딸기 생산지역 및 공급시기



 IV
 V
 MR
 VI
 VII
 VIII
 IX
 X
 XI



〈딸기 품종별 공급시기〉

품 종	월	2	3	4	5	6~9	10	11	12
Blueberries	•	•	•	•				•	•
Strawberries	•	•	•					•	•
Raspberries	•	•	•	•	•			•	•
Blackberries	•	•	•						•

Ⅰ 지역 Ⅱ Ⅲ

5. 과수 수급동향

칠레 과수산업 지속 성장 중

칠레의 과수 재배면적은 2005년 기준으로 32만 1천ha, 생산량은 510만 톤, 수출량은 400만 톤이다. 2000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0%, 31.5%, 22.4%로 칠레의 과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한국 과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5만 5천ha, 260만 톤이므로 한국 생산규모의 2배 정도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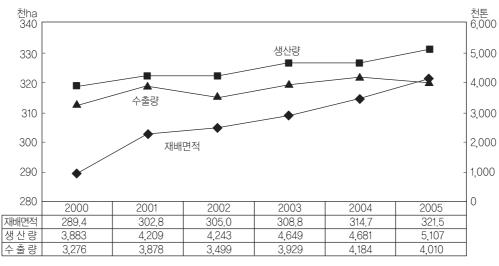


그림 14. 칠레 과수 수급 동향

자료: FAO

포도는 칠레 과일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배면적이 17만 8,000ha, 생산량이 230만 톤, 수출량이 74만 톤으로 2000년 대비 각각 13.5%, 18.4%,

⁹⁾ FAO

¹⁰⁾ 농림업 주요통계, 2005.

9.5% 증가했다. 최근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율에 비해 수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포도 재배면적은 생식용과 가공용을 포함하며,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생식용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체의 25%, 38%를 차지하여 각각 4만 5,000ha, 95만 톤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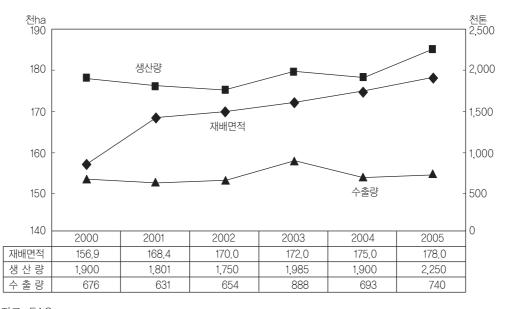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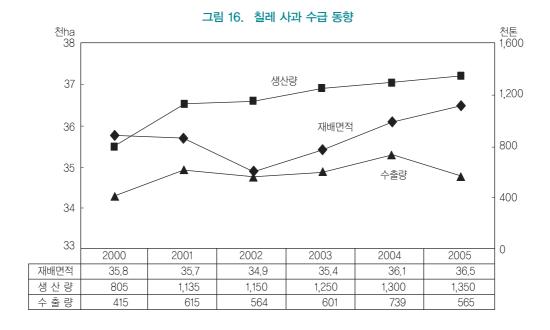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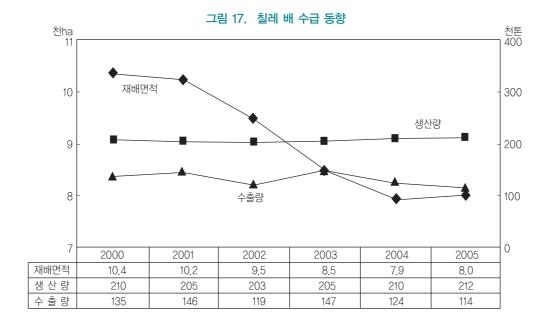
그림 15. 칠레 포도 수급 동향

자료: FAO

칠레의 사과 재배면적은 3만 6,000ha로 최근에 면적이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 량은 140만 톤으로 68%나 증가하여 단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수출량도 57만 톤으로 36% 증가하였다.



칠레의 배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재배면적은 8,000ha, 생산 량은 21만 톤이다. 수출량도 16% 감소하였다.



칠레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2만 1,000ha, 생산량은 32만 톤, 수출량은 12만 톤이다. 2000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5%, 21%, 40%로 특히 수출증가율이 크다. 한국 재배면적 과 생산량에 비해서는 5천ha, 10만 톤 정도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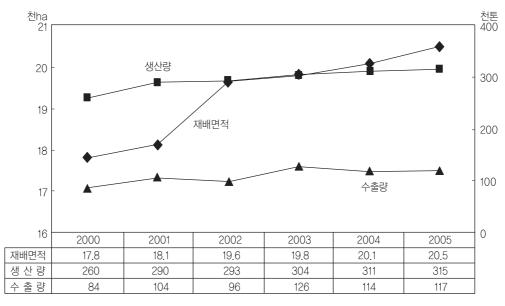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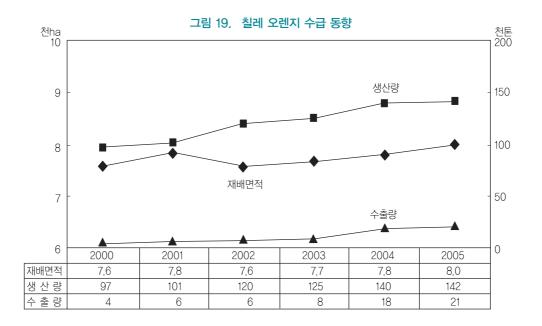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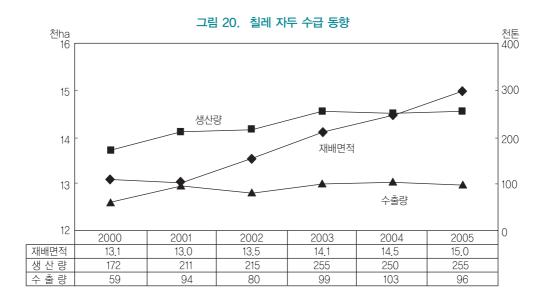


그림 18. 칠레 복숭아 수급 동향

칠레 오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출량은 각각 8천ha, 14만 톤, 2만 1,000 톤이 다. 특히 오렌지의 수출은 절대적 물량 규모 면에서 볼 때 크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아주 높다.



칠레 과수산업에서 자두는 재배면적 규모 면에서 4번째 순위를 차지하며 1만 5,000ha이다. 생산량은 26만 톤, 수출량은 10만 톤 규모이며, 증가율도 48%, 62%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품목이다.



칠레 키위 재배면적은 9천 ha, 생산량은 15만 톤, 수출량은 13만 톤으로 증가율은 각각 20%, 30%, 14%이다. 재배면적이 200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90%를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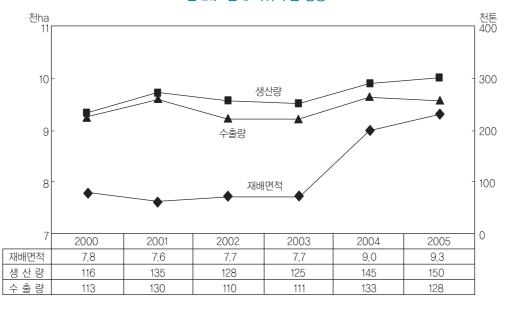


그림 21. 칠레 키위 수급 동향

6. 한국수출동향

칠레산 수입과일 관세 인하 진행 중

(1) 한 \cdot 칠레 FTA 발효에 의해 관세하락 및 수입량 증가 추세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4년에 발효되었다. FTA 협상 타결결과 사과와 배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기존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조건에 의해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칠레산 포도는 국내산 포도 주출하 시기인 5~10월에는 기존 UR 협정에 의해 감축된 관세 45%를 계속 유지하되,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기준세율을 매년 4.1%p씩 인하하고 있다. 2007년 칠레 포도의 계절 관세율은 28.9%이며, 10년 후인 2014년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수입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칠레산 포도 국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상반기에 주로 칠레산 포도가수입되는데 2006년 상반기 수입량은 2000년의 2배 수준인 1만 5,000 톤, 2007년 상반기에는 2만 4,000 톤으로 늘어났다.

복숭아, 키위, 단감은 10년간 관세가 인하되어 2014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키위는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8,600 톤이 수입되었다. 2000년 600 톤에서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복숭아와 단감 관세는 계속 인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당분간 수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귤 관세는 DDA 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2006년에 1,500 톤의 오렌지가 수입되었다.

(2) 칠레 과일 식물검역 진행 동향

현재 칠레로부터 수입이 허용된 과일은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등 4개 품목이다. 만다린, 블루베리, 아보카드, 자몽, 클레멘타인의 식품검역 진행단계는 수입허용 요청 및 병해충위험평가(PRA)의 8단계 중 첫 단계인 접수 상태이다.

표 4. 한·칠레 FTA 양허 유형별 대상 품목

구 분	주요 품목					
제 외	사과, 배					
DDA 협상후 논의	 감귤					
TRQ+DDA 협상 이후 논의	만다린					
16년내 관세철폐	과일혼합쥬스					
10년내 관세철폐	복숭아, 키위, 단감					
10년내 철폐	포도(신선, 냉장) * 5~10월까지는 기존관세 유지					
9년내 관세철폐	기타 과일쥬스					
7년내 관세철폐	복 숭 아 통조림					

표 5. 칠레산 과일 한국 수입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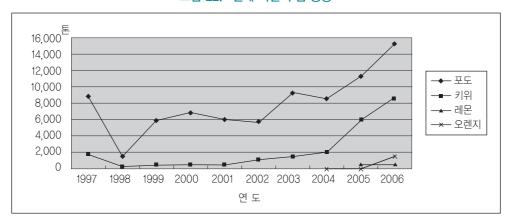
단위: 톤,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률
포 도	8,712	1,084	5,674	6,585	6,066	5,511	9,138	8,317	11,173	15,221	131
키 위	1,845	237	446	571	565	1,209	1,536	2,131	5,932	8,595	1,405
레 몬	_	_	_	_	_	_	_		542	555	2.4
오렌지	_	_	_	_	_	_	_	33	17	1,533	

주) 증감률은 2000년 대비 2006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그림 22. 칠레 과일 수입 동향



7. 과수산업 경쟁력[1]

품질

(1) 과일 당도가 높은 이유

과수 주산지인 칠레 중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수입업체에서 당도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당도가 뛰어나다. 사과의 경우 당도가 기본적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단단함을 나타내는 경도를 측정하는 단계까지 품질관리 수준이 진척되었다. 이런품질이 우수한 과일을 생산하는 조건 및 여건들은 다음과 같다.

- 토지; 과수 주산지인 중부지역의 토지가 비옥함
- 기후; 생육 및 수확기에 거의 비가 오지 않으며 일조량이 많음
- 관수; 안데스산맥에서 연중 흘러내리는 물을 관수로 사용 가능함
- 재배메뉴얼; 지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재배 매뉴얼을 보급, 관리함
- 품종 개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난 후 재배, 수확, 저장, 완숙, 시식 등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면 그 후 본격 재배

칠레에서는 과일의 수확시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인 및 출하지정인 제도를 운영한다. 당도는 과일의 가장 비완숙된 부분을 샘플로 측정한다. 또한 키위의 경우 완숙과 수확 협정을 맺어 당도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수확을 억제시킨다. 그리고 병충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천연적인 기후 및 지형적 조건을 갖추기도 했지만 예찰요원을 두어 지역 병해충을 관찰하며, 생산 기술과 병충해 관리를 위해 지역조직 내부에 기술전문가를 보유하여 정기적인 정보 전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 2007}년 3월말 칠레 현지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함.

(2) 과일별 당도

- -수확 포도의 당도는 Tomson Seedless(톰슨씨드레스) 품종 17.0°Bx, Red Globe(레드글러브) 16.5°Bx
- Packing House 무작위 추출 포도 Red Globe 당도는 18.2°Bx
- 수출용 과일의 당도 조건
 - 포도; 16.0°Bx 이상
 - 넥타린; 12.0~16.0°Bx
 - 사과; 당도는 체크하지 않고 경도 12~16% 이상
 - 귤; 12.0°Bx 이상
- 당도 측정 결과; Packing House 및 도매시장 과일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하여 당도 측정



〈포도 Red Globe 18.6°Bx〉



〈포도주용 포도 20.8°Bx〉



〈유모계 복숭아 15.2° Bx〉



〈넥타린 10.5° Bx〉



〈사과 로얄갈라 11.3° Bx〉



〈사과 14.4°Bx〉



〈서양배 13.2° Bx〉



〈자두 13.9°Bx〉

가격

(1) 칠레포도 도매시장 가격비교12

한국에서 포도수입은 상반기에는 칠레산을, 하반기에는 미국산은 주로 수입한다. 칠레산의 주수입시기는 $4\sim5$ 월, 미국산의 주수입시기는 $10\sim12$ 월이다. 칠레산 포도의 가격은 $1\sim3$ 월중에 출하되는 국내산 저장포도가격의 2.4배 수준이지만 하우스포도

¹²⁾ 농업전망 2005, P628

가격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칠레산 수입포도 가격은 4월에는 국내산 하우스 포도 가격의 9%, 5월에는 18%, 6월에는 46%이다. 2005~2006년의 5월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비교해 보면 칠레산 수입포도 가격은 국내산 포도가격의 17.4%로 나타났다.

표 6. 국내산 포도와 수입산 포도의 가격비교

단위: 원/kg

	1~3월	4월	5월	6월	7월	8~9월	10~12월	연평균
국내산	1,676 ¹⁾ (100) ²⁾	34,131 (100)	15,212 (100)	6,107 (100)	4,201 (100)	1,720 (100)	2,272 (100)	2,020 (100)
수입산3)	4,060 (242)	3,089 (9)	2,790 (18)	2,797 (46)	3,207 (76)	3,557 (207)	3,745 (165)	3,111 (154)

주 1) 2000~04년 가락동 도매시장 평균 실질단가이며, 2004년은 11월까지 자료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유통

(1) Packing House 작업 환경

칠레의 과일 Packing House는 과일의 신선도와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전체적으로 청결하고 낮은 온도의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 및 손 세척, 모자 및 가운 착용은 필수적일 정도로 위생관리에도 유의하고 있다.

(2) 신선도 유지

수입업자들이 수입 상품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Packing House에 에어컨이나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비닐 통로를 설치하고 저온 상태를 지속시킨다.

^{2) ()} 안은 국내산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가격 비율임.

^{3) 1~6}월은 칠레산 포도. 7~12월은 미국산 포도가 주로 수입됨.

(3) 자동화에 의한 포장단위 다양화 및 상품성 제고

수출 상품의 품질과 중량단위는 자동화 기능과 바코드 기능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포장시스템은 kg 단위로 포장할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다. 기계화 작업에 의해 수입 업체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포장단위를 다양화시키며, 운송 기간 중 중량 감모분을 고려한 무게를 추가하여 포장한다. 포장 및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코드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 상자에 기록되는 내용은 품종, 개수, 생산자, 선별일자, 장소, 바코드 등이다.

(4) 조직화

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과일 생산농가들은 Packing House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생산농가들은 생산 단계에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 다. 또한 조직 단위에서 등급부여, 상품성 관리, 출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등급 은 전문기술자에 의해 부여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불만은 거의 없는 편이다. 과일 출하 로 인한 대금 수취금액은 출하 물량 및 등급에 따라 정산된다.

(5) 수출상품 관리

Packing House에 출하된 과일은 선별 기준에 의해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 된다. 품질이 좋은 것은 수출용으로 포장되고 품질이 낮은 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도매시장에 내수용으로 출하한다. 지두 등 육질이 약해 쉽게 상할 수 있는 과일은 가 급적 선별이동 경로를 짧게 설정하여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수출

(1) 수출 동향

칠레는 과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과일 수출국이다. 선별 및 상품화 과정에서 품질이 좋은 것들은 수출하고 수출하기에 부적합한 품질의 과일들은 내수용으로 출하한다. 포도는 주로 미국 시장에, 사과와 키위는 유럽시장에 수출하며, 한국으로는 주로 포도, 키위, 레몬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

(2) 수출 전망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전략은 과일 공급 단경기에 최고급 등급의 품질을 수출하는 것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칠레 과일의 수요는 정체된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물량도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수입 및 검역기준이 까다롭다고 평가하고 있다. 까다로운 한국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칠레 주변 국가로 수출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3) 한국 시장

현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는 사과, 복숭아 등에 대한 수출의향은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조치에 의한 수입금지가 쉽게 해제되리라 고는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식물검역조건이 해제되어 수출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 수출할 의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중국 과수와의 경합

중국 과수산업의 성장은 칠레 과수산업 성장에도 위협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넥타린과 포도는 생산 계절과 공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칠레 과일을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과수 정책13)

(1) 정책 방향

칠레 정부는 과일 생산 및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과원 조성이 가능한 대지를 꾸준히 개발, 개척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업자에게는 대규모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므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감 등 품목별 성장과 쇠퇴도 일정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사과와 키위 붐이 일었으나 최근에는 아보카도와 베리(Berry)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2) 주요 정책

과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보험료는 지역과 품종별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며 매우 까다로운 시스 템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일 수출업자에 대한 보험 지원제도는 비중에 제한을 둘 계획 이다

칠레는 안전성이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검역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품종 개발과 묘목수입을 위한 국제교류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도 가입했다.

칠레 정부는 과수 생산을 위한 과원조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식물검역해제국가 확

¹³⁾ 칠레 농업성 농정국(ODEPA) 국제교류부 면접내용에 근거함(2007년 4월).

대 등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반면 수출 여부는 과일 생산 농가 및 협회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

칠레 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만한 품목이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호 변화를 예측하여 성장동력이 될 만한 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국의 과수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칠레 과수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역으로 칠레 과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기고 있다.

8. 시사점

품질 경쟁력

칠레는 기후적인 조건이나 지형적 위치, 관수 여건 등을 볼 때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에 천혜의 혜택을 부여받은 국가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인적 노력 측면에서도 품질관리인 지정, 완숙과 수확협정, 예찰요원 운영 등의 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써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기후여건은 과수 개화기, 착과기, 생육기, 수확기별로 기후 변화가 큰 편이어서 연도별 작황 및 품질, 가격 및 소득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이에 대응하려면 기후 변동에 덜 민감할 수 있는 품종과 작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칠레의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인적 노력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 경쟁력

칠레는 저렴한 토지비와 인건비, 기업형 농장규모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도매시장에서 포도 출하가 겹치는 시기인 5월을 기준으로 칠레산 포도가격은 국내산 하우스포도 시장가격에 비해 17% 정도로 낮아 가격경쟁력이 높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규모가 작고 농자재 투입비가 비싸며, 노 동력도 부족하고 비싼 편이어서 생산비용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여건이다. 하지만 다 행히 최근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고 맛이 좋은 과일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과 출하 과정 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저 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직화와 규모화

칠레는 단위당 농장의 경영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1인 소유 기업형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농장규모가 비교적 넓은 농가들끼리 공동 조직화하여 생산 및 출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선별, 상품화, 출하 관리 과정에서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과수농가는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조직화, 규모화 추진도 미진한 편이다. 그러나 시장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과일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려면 대형 유통업체 등에 지속적, 탄력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출

하체계로 변해야 할 것이다.

출하단계에서 조직화, 규모화시킴으로써 상품화 및 출하, 마케팅 등의 업무는 조직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 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과수 대표조직 활성화

칠레는 과일수출연합회(ASOEX) 조직을 두어 과일 생산, 유통, 수출 지원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신선과일의 80% 이상을 수출하는데 이중의 90% 는 과일수출연합회 회원의 물량일 정도로 조직이 규모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다. 이 조 직은 칠레 과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훈련프로그램, 신시장개척, 마 케팅 활동 등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도 과수 부문에 관련된 생산자단체와 조직들이 있으나 생산 조정이나 수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과수 생산과 유통, 마케팅 활동을 결집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조직이 요구된다.

한국수출

칠레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정반대편에 위치하여 거리가 멀고 계절도 정반대이다. 따라서 과일 품목별 공급시기도 한국과 다르므로 국내 과수 주출하시기에 시장에서 직접 경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장 및 운송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과일 공급 단경기에 가장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공급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과일 공급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재배 작형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유리할 것이다. 또한 하우스 재배 작형은 유류비 상승,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생산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영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온하우스 생산 등의 작형 선택은 가급적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수 정책

칠레의 과일 수출업자나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 측의 과일 식물검역조건 및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식물검역의 기본 목적이 과일 수출입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해병해충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과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식물검역해제 절차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역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기후측면에서 칠레처럼 자연적으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 외의 생산조건 즉, 품종 개발, 토지, 재배작형, 과원환경 등의 조건에서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지원, 개선해 나가야 한다.

칠레의 과수사업은 생산과 유통 규모가 집중화, 규모화, 조직화되어 있다. 한국은 과수 경영구조가 영세한 편인데,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라도 조직화, 규모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원정책들을 도입해야할 것이다.

칠레는 정책적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과일 품목을 개발 하여 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시장개방화가 확대되는 환경 에서 가급적 외국 과일들이 수입되는 시기를 늦추거나 개방 폭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는 한편, 국내 과수산업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완만하게 연착륙시켜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칠레는 과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한국은 생산한 과일을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이다. 국내 과수산업이 칠레와 같은 수출국가처럼 전문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교역범위 및 물량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과수산업의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맛있고 안전한 믿을 수 있는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일정 역할은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 연구자, 관련 기관, 정책 담당자들의 공동 노력 및 협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필, 박미성, 김현노, 류상모. 2007. 1.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81.

농림부 내부자료. 2004. 1. "한·칠레 FTA 대비 농업분야 지원대책(안)."

농림부. 2006. 「농림업주요통계 2006」.

세계식량농업기구(FAO). http://www.fao.org/

어명근, 최지현, 최윤국. "칠레의 과수산업 경쟁력과 향후 교역 전망." 농업경영·정 책연구. 2000.

주한칠레대사관.「Chil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6, 11. 「과일관측월보 2007년 7월호」,

CHILEAN FRESH FRUIT ASSOCIATION(ASOEX). Chilean Fresh Fruit Industry.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http://www.samaco.co.kr/gongsa/index.jsp

칠레신선과일연합회(ASOEX). http://www.cffa.org/home.shtml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칠레 농업부. http://www.odepa.gob.cl/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04d3332b

http://www.chileimage.com

http://www.chileinfo.com

http://www.prochile.cl

http://www.chilegap.com

해외농업 시리즈 5 칠레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8

발 행 2007.8

발행인 최정섭

E 0 C 10 H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문 원 사

전화 739-3911~5

ISBN 978-89-6013-045-6 93520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